

KIA, 운명건 원정 6연전 터너가 앞장선다



20일 LG 시작 키움·SK와 대결
월슨과 '자존심' 놓고 한판 승부
상대 전적 LG·키움에 뒤지고 SK 앞서
'마운드 구슬 꿰기'가 성패 가를 듯

다가 바로 KIA다.
KIA는 지난 16일에도 3루수 최정의 송구 실책으로 끝내기 승을 거두는 등 SK에 7승 1무 6패로 앞서 있다.
'마운드의 구슬 꿰기'가 원정 6연전의 성패를 가른다.
지난주 KIA는 '끝까지 가는 승부'를 펼치려 진땀을 흘렸다. 최근 4경기는 1점 차에서 승부가 갈렸다.
15일 SK전에서 9회 2사 만루까지 갔지만 6-7로 졌고, 양현종이 7이닝 무실점의 호투를 한 16일에는 상대의 실수로 간신히 1-0 끝내기 승을 만들었다.
KT와의 2연전도 숨 막혔다. 17일 10회 연장승부 끝에 3-4로 진 KIA는 18일에도 9회말 나온 안치홍의 선두타자 안타를 살리지 못하고 1-2로 졌다.
박빙의 승부가 이어지면서 불펜의 피로도가 쌓였다. 결과가 좋지 못했던 만큼 교체 타이밍에 대한 아쉬움도 전하게 남는다.

■ KBO중간순위 (19일 현재)

순위	팀명	경기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1	SK	115	74	40	1	0.649	0.0
2	두산	114	68	46	0	0.596	6.0
3	키움	117	69	48	0	0.590	6.5
4	LG	113	61	51	1	0.545	12.0
5	NC	113	56	56	1	0.500	17.0
6	KT	115	56	58	1	0.491	18.0
7	KIA	113	49	63	1	0.438	24.0
8	삼성	111	46	64	1	0.418	26.0
9	한화	114	44	70	0	0.386	30.0
10	롯데	113	42	69	2	0.378	30.5

록된 승리였다.
터너는 위력적인 강속구를 마음껏 활용하지 못하고 자신과 싸움을 벌여왔다. 공교롭게 터너의 선발 날에 야수진의 실수도 이어졌다.
다행히 앞선 등판에서 분위기를 전환한 터너는 기세를 이어 LG 약세를 극복하고 자존심 회복을 노린다.
터너는 LG와의 3경기에서 11.93의 평균자책점으로 2패만 쌓았다.
월슨도 KIA를 상대로 자존심 회복에 나선다.
지난 7월 27일 KT전에서 10승 고지에 오른 월슨은 8월 두 경기에서는 연달아 조기 강판당했다. 3일 삼삼점은 1.1이닝, 14일 키움전도 3회가 끝이었다. 이 두경기에서 11실점을 하며 8월 평균자책점은 22.85이 됐다.
터너와 월슨의 최근 분위기는 다르지만 '자존심 회복'이라는 목표는 같다. 터너의 표정에 따라 KIA의 한 주 성적표도 달라질 전망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5강 싸움에 제동이 걸린 '호랑이 군단'이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기 위해 원정길에 오른다.
7위 KIA 타이거즈에는 눈에 밝히는 장면이 많았던 한주였다. 두산, SK, KT와의 홈 6연전에서 2승 4패의 전적을 거두는데 그치면서 5강길은 험난해졌다.
특히 6위 KT에 두 경기를 모두 내주면서 6경기 차까지 벌어졌다. '가을잔치'의 마지막인 5위, NC와는 7경기 차다.
앞으로 31경기를 남겨두고 있지만 KIA로서는 쉽지 않은 추격이다. 상위권 팀을 만나게 되면 원정 6연전에 KIA의 2019시즌 운명이

결려 있다.
KIA는 20일 LG를 시작으로 키움, 그리고 SK와 대결한다. 모두 가을잔치를 기다리는 팀들이다.
SK는 2위 두산에 6경기 차 앞선 채 선두 질주를 하고 있다. 키움은 반 경기 차로 2위 두산을 쫓고 있고, LG도 NC에 5경기 차 앞선 4위로 '가을 잔치'를 준비하고 있다.
올 시즌 상대 전적에서도 LG와 키움에 각각 5승 7패, 4승 7패로 뒤져있다.
그나마 SK에는 강세다. 올 시즌 74승 1무 40패(승률 0.649)의 SK가 유일하게 열세를 보이는 상

광주 금호고, K리그 U18 챔피언십 첫 우승 도전

오늘 포항 스틸야드서
수원 삼성 U18 매탄고와 결승전

광주FC 유스팀인 금호고가 '2019 K리그 U18 챔피언십' 정상에 도전한다.
금호고가 수원 삼성 U18 매탄고와 20일 오후 8시 30분 포항스틸야드에서 '2019 K리그 U18 챔피언십' 결승전을 치른다.
최수용 감독이 이끄는 금호고는 지난 18일 포항 양덕 3구장에서 열린 대회 4강전에서 포항 스틸러스 U18인 포항제철고를 2-1로 꺾었다.
허술이 승리의 주역이 됐다. 전반 3분 만에 선제골을 만든 허술은 전반 14분 추가골까지 넣으면서 분위기를 가져왔다.
금호고는 후반 26분 포항제철고에 만회골을 내줬지만 남은 시간을 살점 없이 막으면서 대회 첫 결승 진출에 성공했다.
매탄고는 수원FC U18팀과의 '수원 derby'에서 2-1 역전승을 거두고 결승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광주는 K리그 산하 22개 고등부 클럽들이 모두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부산, 인천, 서울, 수원, 울산과 조 1위로 조별리그를 통과했다.
한편 2015년 창설된 K리그 U18대회는 전 경기 야간 개최, 고품질 경기 영상 및 EPTS분석 데이터 제공, 매치 리포트 배포, 선수단 대상 각종 교육 시행 등을 통해 고품격 대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회를 통해 임원상(광주) 정우영(프라이부르크), 오세훈(야산), 송범근(전북), 김진야(인천), 전세진(수원) 등 스타 선수도 배출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U18 금호고가 K리그 U18 챔피언십 결승에 진출해 20일 포항스틸야드서 수원 매탄고와 대회 마지막 경기를 치른다. 안양공고와의 조별리그 1라운드 경기 모습.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독일 홀슈타인 킬 이재성 동점·역전골 '원맨쇼'



분데스리가2(2부리그)에서 활약하는 이재성(27·홀슈타인 킬)이 멀티골을 터트렸다.
이재성은 지난 18일(이하 한국시간) 독일 킬의 홀슈타인 경기장에서 열린 2019-2020 분데스리가2 3라운드 카를스루에 SC와의 홈 경기에서 선발 출전해 2골을 몰아 넣으며 2-1 역전승을 이끌었다.
필스나인으로 중흥 무진 활약한 이재성의 '원맨쇼'로 홀슈타인 킬은 정규리그 3경기만에 첫 승리를 거두며 승격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홀슈타인 킬은 전반 18분 루카스 그로주에게 선제골을 허용하며 어렵게 경기를 풀어나갔다.
홀슈타인 킬에는 '에이스' 이재성이 있었다.
전반 40분 팀 동료가 찢어진 공을 이재성이 골 지역 오른쪽으로 쏘아대며 잡은 뒤 한차례 개인기로 수비수를 벗겨 냈다. 이후 슛팅 각도를 만든 이재성은 지체없이 슛을 날렸고 득점에 성공했다.
이재성은 자신의 약점을 '소녀샷'이라 꼽을 정도로 찬스시 유독 약하게 치렀다. 하지만 이번 동점골은 그간의 약점을 극복한 환상적인 슈팅이었다.
후반 9분에는 낮게 날라온 크로스를 잡아 슛을 날렸지만 골포스트를 맞고 나왔다.
10분 뒤 이재성은 기어코 결승골을 넣었다.
팀 동료의 크로스를 미끄러지며 방향만 살짝 바꾸는 슛으로 결승골을 뽑았다.
홀슈타인 킬은 후반 42분 수비형 미드필더 요나스 페페르트가 위험한 태클로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을 당해 수적 열세에 놓였지만 리드를 끝까지 지켜냈다.
멀티골을 넣은 이재성은 '키커'지 선정 분데스리가2 3R MVP에 선정됐다. 카를스루에의 공격형 미드필더 최경록이 후반 40분 교체 투입돼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최경록은 후반 추가시간까지 10여분 동안 활발하게 움직였지만 팀의 패배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이번시즌을 앞두고 MSV 뒤스부르크(3부리그)에서 홀슈타인 킬에 합류한 왼쪽 풀백 서영재도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나 출전하지는 못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임성재, PGA 플레이오프 최종전 진출



PGA 투어 신인상 '예약'
임성재(21)가 한국 국적 선수로는 3년 만에 미국 프로골프(PGA) 투어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최종전인 투어 챔피언십에 진출했다.
임성재는 19일(한국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메디나의 메디나 컨트리클럽(파72·7429야드)에서 열린 PGA 투어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2차전 BMW 챔피언십(총상금 925만달러)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이글 1개와 버디 3개를 묶어 5언더파 67타를 기록했다.
최종합계 13언더파 275타의 성적을 낸 임성재는 출전 선수 69명 가운데 공동 11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임성재는 시즌 성적을 포인트로 환산한 페덱스컵 포인트 부문 24위에 올라 상위 30명만 출전하는 시즌 최종전 투어 챔피언십에 나가기 됐다.
역대 플레이오프 최종전에 진출한 한국 선수는 최경주(2007년·2008년·2010년·2011년), 양용은(2009년·2011년), 배상문(2015년), 김시우(2016년)에 이어 임성재가 5번째다.
한국 선수의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최고 성적은

2007년 최경주의 5위다.
임성재는 또 2018-2019시즌 신인 가운데 유일하게 투어 챔피언십에 진출, 한국 국적의 선수로는 최초로 PGA 투어 신인상 수상도 사실상 '예약'했다.
2007년 페덱스컵 제도가 도입된 이후 해당 시즌 신인 가운데 페덱스컵 순위가 가장 높은 선수는 한번의 예외도 없이 신인상을 받았다.
이밖에 임성재는 투어 챔피언십 진출로 2019-2020시즌 마스터스와 디오피, US오픈, 월드골프챔피언십(WGC) 멕시코 챔피언십과 HSBC 챔피언십,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 나갈 자격도 획득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저스틴 토머스(미국)가 25언더파 263타로 우승했다.
토머스는 지난해 8월 WGC 브리지스톤 인비테이셔널 이후 1년 만에 투어 통산 10승을 달성했다. 우승 상금은 166만5000달러(약 20억1000만원)다. 패트릭 캔틀레이(미국)가 22언더파 266타로 준우승했고, 마쓰야마 히데키(일본)는 20언더파 268타로 단독 3위에 올랐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는 이날 이븐파 72타에 그쳐 최종합계 7언더파 281타, 공동 37위에 머물렀다.
/연합뉴스

'추추트레인' 추신수 3년 연속 20홈런

'추추트레인' 추신수(37·텍사스 레인저스)가 개인 통산 처음으로 3년 연속 20홈런 고지를 밟았다.
추신수는 19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 글로브라이프파크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미네소타 트윈스와 홈 경기에서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시즌 20번째 아치를 그렸다.
홈런은 2-3으로 뒤진 7회 말 공격에서 나왔다. 선두타자로 나선 추신수는 상대 팀 바뀐 투수 샘 다이슨을 상대로 볼카운트 1볼 2스트라이크에서 가운데 물린 시속 154km 직구를 밀어쳐 왼쪽 담장을 넘기는 동점 홈런을 쳤다.
추신수는 2017년 22개, 2018년 21개의 홈런을 날린 데 이어 올 시즌 20개 홈런을 기록했다.
추신수는 아시아 최초 3년 연속 20홈런을 기록한 선수로 남게 됐다. 아시아 최고의 거포로 평가받는 마쓰이 히데키도 이 기록을 정복하지 못했다.
마쓰이는 2004년 메이저리그 뉴욕 양키스에서 31홈런을 터뜨렸지만, 3년 연속 20홈런 기록은 세우지 못했다.
/연합뉴스